

##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林 玲 愛\*

### 차 례

I. 머리말	IV. 양식적 특징과 제작연대
II.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보살상의 조성배경	V. 맺음말 -조각사적 의의-
III.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보살상의 현상 및 특징	

### I. 머리말

이곳 강원도 원주지역에는 유난히 많은 수의 불교미술이 남아있다. 시기는 대체로 고려시대 전기(918~1170)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명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과 석비라든지, 거둔사, 흥법사의 승탑 및 석비 등을 위시하여 잘 알려진 寺址만 30여 곳에 달한다. 불교조각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고려 전기의 것으로 짐작되는 불교조각 중 비교적 잘 알려진 것으로 현지에 있는 것만 13구에 달한다.<sup>1)</sup>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철불 5구, 석불 2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20여구에 이른다.

단일지역으로 고려시대 전기라는 일정한 시기에 20여구 이상의 불교조각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전공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원주의 불교조각은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불 3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sup>2)</sup>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00-047-100036)

1) 사진기록으로는 남아있으나 실물은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최근 주민들에 의해 새롭게 발견, 소개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불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언급이지만 다음과 같은 논고가 있다. 최성은, 「나말려초 포천출토 철불좌상 연구」, 『미술자료』 61(1998), pp. 1~20 ; 최성은, 「광주철불좌상에 대한 고찰 - 고려초기 철불의 양식적 계보」, 『불교미술연구』 2(1995), pp. 27~43 ; 이인영, 「고려시대 철불상의 고찰」, 『미술사학보』 2(1989), pp. 71~75 ; 강우방, 「통일신라철불과 고려철불의 편년시론-충남 서산군

원주지역이 고려시대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지금까지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것은 이 지역, 이 시기의 불교조각 말고도 연구해야 할 테마가 산적해 있었던 탓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시기 정확한 제작연대를 동반하고 있는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필자에 의해 명문이 확인된 「元祐5年 입석사 마애불좌상」(圖 19.21)<sup>3)</sup>은 109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려주고 있어, 고려시대 전기 특히 이곳 원주지역 불교조각의 중요한 기준작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원주지역 조각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입석사 마애불좌상이 1090년, 즉 11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에 제작되었음이 분명히 밝혀짐에 따라, 이를 기준작으로 하여 고려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 원주지역 조각들을 새롭게 자리매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려시대 전기라는 시기에 이곳 원주지역에 이토록 많은 불교유물이 존재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고려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또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그리고 고려 후기 및 그 이후에 해당하는 불교조각은 또 왜 없는가. 이 글은 이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대상은 원주에서 출토된 철불 및 석불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 중 서산 보원사지출토 철불좌상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불좌상 3구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세기 중엽이라는 대략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이들 3구의 철불좌상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원주지역 대부분의 석불좌상과는 제작시기에 따른 양식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3구의 철불좌상보다 제작시기가 늦지만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 및 석조불좌상(圖 9, 12, 17, 20)과 원주에 남겨져 있는 석불좌상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sup>4)</sup> 뿐만 아니라 최근 강원도 유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진 매지리 석조보살입상(圖 28)을 위치하여 봉산2동의 신선암 보살입상(圖 27), 봉산동 석조보살입상(圖 25) 등 5구의 석조보살입상 역시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함께 포함하여 서술토록 하겠다.

운산면의 철불좌상과 운산면보원사지 장육철불좌상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41(1988), pp. 23~29.

3) 명문은 불좌상의 좌측하단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구획을 마련하고 오른쪽 무릎의 끝부터 세로로 '元祐五年庚午三日月'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林玲愛, 「元祐5年(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제12집(1999), pp. 195~211.

4) 단 과편으로 존재한다거나 특이한 양식적 특징을 지니는 몇 예, 이를테면 원주시 미륵산 정상의 암벽면을 깎아 부조로 새긴 주포리 마애불좌상이나 희미한 선각으로 남겨져 있는 수암리마애삼존상 등은 제외하였다.

## II.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보살상의 조성배경

고려시대 전기 이곳 원주는 불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불교사적으로 이 지역이 중요한 곳이라는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圖 1)과 석비, 현존 최대의 석조대좌라는 지름이 2m가 넘는 원주 거둔사 지 사각형 석조대좌<sup>5)</sup>(圖 2) 등 남겨진 불교유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圖 1.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경북공

그렇다면 고려시대 전기 불교에 있어서 이곳 강원도 원주의 위상은 어떠하였을까. 고려 태조-문종대까지, 즉 918년부터 1082년까지 약 160여년간 왕사와 국사를 지낸 이는 대략 19명으로 추산되는데,<sup>6)</sup> 그 중 4명이 원주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흥법사의 眞空大師 忠湛(869~940),<sup>7)</sup> 거둔사의 圓空國師 智宗(930~1018),<sup>8)</sup> 그리고 법천사의 智光國師 海麟(984~1070)의 경우 死後 그들의 승탑과 탑비가 원주에 조성되었다.<sup>9)</sup> 특히 흥법사 진공대사의 탑

- 5) 이 대좌는 법당으로 추정된 건물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마멸이 심하여 문양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상·중·하대로 구성된 거대한 대좌임을 알 수 있다. 한림대학교 박물관, 『거둔사지 -제1차 조사약보고』 1989, pp. 20~28 현재 남겨져 있는 대좌의 바닥 직경은 1m 남짓이다.
- 6) 이 경우 어느 한 명의 승려가 왕사나 국사 중 하나의 칭호만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왕사와 국사에 모두 책봉되는 경우가 있다. 또 생시에 왕사로 책봉되었다가 사후에 국사로 추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승려들을 모두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였을 때 태조~문종대까지 모두 19명으로 합산된다. 金龍善, 「고려 전기의 法眼宗과 智宗」, 『강원불교사연구』(1996), pp. 85~86.
- 7) '원주 흥법대사 탑비문'에 관해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19개의 승려 비문 및 묘지명이 수록되어 있는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1(이지관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pp. 160~185)을 참조 바란다. : 고려시대 승려들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김용선, 「고려승려의 일대기」, 『인문학 연구』 제7집(한림대학교, 2000), pp. 161~198 참조.
- 8) '原州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文',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이지관 역주(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pp. 214~260.
- 9) 고려시대 전기 원주와 관련있는 왕사·국사 관련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졸년	왕사 / 국사	종파	관련사찰	승탑조성
眞空大師 忠湛	869~940	? ~ 940 / .	선종(鳳林山)	원주 흥법사	940년
圓空國師 智宗	930~1018	1013~1018/1018(追贈)	선종(法眼宗)	원주 거둔사	1025년
慧紹國師 鼎賢	972~1054	1049~1954/1954	法相宗	원주 법천사	七長寺
智光國師 海麟	984~1070	1056~1058/1058~1070	法相宗	원주 법천사	1085년



圖 2 거둔사지 석조대좌 및 탑 전경

비는 그 비문을 태조 왕건이 직접 짓고 있는 점<sup>10)</sup>으로 미루어 당시 그의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의 註9의 표 중에 3번째 있는 혜소국사 정현의 경우 그의 승탑이 원주에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1032년경 수좌로써 법천사의 주지를 지낸 바 있고, 이후 이어서 왕사와 국사를 지냈다. 단일지역으로 4명의 왕사·국사를 배출한 개경만큼 많은 왕사와 국사가 관련된 지역이 바로 원주이다. 왕사와 국사는 당시 승려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였을 것이다.

특히 10세기 중엽 선종의 쇠퇴 이후 11세기에는 이곳 원주가 법상종의 주 근거지가 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법상종은 현종(1009~1030)의 즉위 이후 11세기 초부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sup>11)</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곳 원주의 법천사는 가장 대표적인 법상종 사찰이다.<sup>12)</sup> 원주 법천사를 본사로 한 대표적 승려로는 원주 원씨인 지광국사 해린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당시 왕사·국사를 지냈으며, 특히 현종(1010~1031) 이후 문벌귀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종에게 세 딸을 출가시킨 인주 이씨李子淵의 5자韶顯(1038~1096)이 해린의 문하에 출가하면서부터 그 관계는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11세기라는 시기에 이곳 원주는 법상종의 융성에 힘입어 왕실과 인주이씨 등이 시기 대표적

10)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 『朝鮮金石總覽』 上, pp. 144~148.

11) 김남윤 「고려 전기의 법상종과 海麟」, 『강원불교사연구』, 小花(1996), pp. 113~147 ; 김남윤 「고려중기불교와 법상종」, 『한국사론』 28(서울대 국사학과, 1992), pp. 109~149.

12) 원주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였던 법천사에서 928년 증원경(충주)출신의 승려 釋超가 수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곳 원주와 충주일대와의 관련 뿐만 아니라 당시 법천사의 寺格을 짐작하게 한다. 김남윤, 앞 글, 『강원불교사연구』(1996), pp. 113~147.

귀족세력과 연결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광국사 해린의 탑 비문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上則震悼 尋遣左街僧錄崇演·保章正金參蘭等 監護葬事 續差遣專介 往彼殯堂 致其卓祭 贈諡曰 智光 併賜茶香油燭及原州倉穀 以充拔薦之資…”(밑줄 필자)<sup>13)</sup>

“(지광국사의 입적소식을 듣고) 왕이 크게 놀라서 곧 좌가승록 승연과 保章正<sup>14)</sup> 김삼인 등을 보내서 장사를 감호하게 하였다. 또 이어서 신하를 보내어서 빈당에 가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시호를 지광이라 하고 아울러 차와 향, 油燭과 원주 창곡을 내리어 명복을 비는 의식의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sup>15)</sup>

위 비문의 기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광국사가 법천사에서 1070년 84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왕이 장례를 감호하도록 관리를 파견하고, 아울러 흥원창의 곡식으로 천도 법요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던 사실 역시 당시 융성한 개경의 귀족문화가 이곳 원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광국사 해린의 제자이자 당대 최고의 문벌이었던 이자연의 아들 소현이 지광국사의 탑과 비를 세웠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조성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11세기 전기~중기에 이르러서는 법상종의 세력강화로 이 곳 원주일대에 법천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되어 지방문화의 한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6)</sup>

불교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곳 원주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고려초 원주 원씨인 元克猷에 관해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元傳는 원주사람인데 9대조 元克猷는 태조 왕건을 보좌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삼한 공신의 칭호를 받았고, 관직이 兵部 丞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다.’<sup>17)</sup> 또 원주 원씨로써 고려전기의 10세기 초부터 11세기 말까지 3품이상의 고급관리를 지낸 이가 元微衍, 元穎, 元祐 등 3인에 이른다.<sup>18)</sup>

13)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碑 (조선총독부편), 『朝鮮金石總攬』 上(1919), p. 289 : 『朝鮮寺刹史料』 下, pp. 10~21.

14) 고려 초기 太史局의 관직 중 하나로 8품에 해당한다.

15) ‘原州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文’,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이지관 역주(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pp. 348~395.

16) 원주 법천사의 경우 주지였던 승려들이 대부분 승통이 되어 개경 현화사로 옮기고 있어 寺格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법천사의 경우 1140년경 德謙이 법천사 주지로 있다가 왕사로 탈락된 점으로 미루어 12세기 중엽까지는 그 세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7) 『高麗史』 卷 第107 元傳 “元傳原州人 九世祖克猷 佐太祖有功 號三韓功臣 官至兵部令…”

18) 이들 중 元微衍은 태조~목종(918~1009)대에, 元穎, 元祐는 현종~문종대(1010~1082)에 3품이상의 관직을 지냈다. 이수건 「고려전기 지배세력의 姓貴分析」,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일조각, 1984), p. 221.

원주가 이처럼 불교 및 정치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원주의 지리적 위치가 큰 몫을 하였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은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모두 모이는 입구에 위치한 수로교통상의 요충지였다. 육상의 교통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 있어서 수로를 이용한 조운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드는 운반수단이였다. 이러한 수운의 이점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던 왕건과 그의 후손들은 일찌감치 육로보다는 수로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물자운반은 조운을 이용하였다.

이 때 남한강 물길을 따라 개경과 통하는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원주이다(圖 3). 물길은 충주에서 강을 따라 원주, 여주, 양근을 지나 모두 한강으로 들어간다.<sup>19)</sup> 이같은 원주의 지리적 이점은 남한강 유역에 위치한 원주가 수도인 개경과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圖 3. 지도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 곳 원주가 주변의 세곡을 일단 모았다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반하는 전국 12개 조창<sup>20)</sup> 중 하나였음은 『고려사』에 여러 번 보인다. 남한강 수

19) 李重煥 撰, 『擇里誌』 八道總論 江原道 “東北受五臺以西水 西南之原州爲蟾江 入于興元倉南 與忠江下流合” (동북쪽에서 오대산 서쪽의 물을 받아,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원주에 이르러 섬강이 되고, 흥원倉 남쪽으로 흘러들어 충주강의 하류와 합친다.)

20) 고려시대 세곡의 조운에 관해서는 孫弘烈, 「高麗 漕運考」, 『史叢』 21·22(1977), pp. 181~203; 北村秀人, 「高麗初期의 漕運에 對한 一考察」, 『古代東亞論集』 上(1978), pp. 323~367; 北村秀人, 「高麗時代의 漕倉制에 對한」, 『朝鮮歷史論集』 上(1979), pp. 403~446; 崔完基, 「高麗朝의 稅穀運送」, 『韓國

로의 중심지인 이곳 원주에 설치된 국가 운영의 漕倉 즉 興原(元)倉<sup>21)</sup>은 평창, 영월, 정선, 횡성 등지의 고을 전세와 세곡을 수납하여 漕運으로 서울로 가져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2)</sup> 전국에 설치된 12개의 조창 중 중부지역과 연결되는 내륙수운을 따라 설치된 조창은 원주의 흥원창과 충주의 덕흥창 뿐이다. 이 두 곳만이 水運倉이고, 나머지 10조창은 해로를 이용하던 海運倉이다.<sup>23)</sup> 흥원창과 같이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 평저선을 띄우게 되는데, 흥원창의 경우 200석을 실을 수 있는 평저선 21척을 보유하고 있었다.<sup>24)</sup> 21척의 배는 조운하기 쉬운 계절인 매년 2월부터 대략 4월까지 3개월간 운항되었다.<sup>25)</sup>

원주의 흥원창을 위시한 12조창은 국가가 직영으로 조운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11세기 전반 靖宗(1035~1046) 때에 성립되고,<sup>26)</sup> 11세기 중엽 文宗(1047~1082) 때에는 확립되었다. 물론 12조창이 정비되어 국가가 직접 조운을 직영하기 이전에도 다소 산만하고 분산된 모습이기도 하였지만 호족들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세곡의 징수와 조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군현제가 자리를 잡고 12조창이 확립된 이후, 즉 11세기부터는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었다. 이와같은 공식적인 조운 이외에도 이 뱃길을 통해 수많은 상인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이곳 원주는 남한강의 물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舟商으로 부를 누렸고 결국 이러한 재원이 결국 귀족들이 원주나 충주에 대사찰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18세기 중엽경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중환이 편찬한 『택리지』의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史研究』 34(1981), pp. 29~52 참조할 것.

21) 흥원창은 지금의 원주 銀蟾浦에 해당하는데, 정확히는 원주군 부론면 흥호2리이며 법천사지와 가깝다.

22) 『新增東國輿地勝覽』 第46 原州牧 “興原倉在蟾江北岸距州南三十里改本州及平昌寧越旌善橫城等官田稅于此漕至京師”(興原倉은 蟾江의 북쪽 언덕에 있으니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본州와 평창, 영월, 정선, 횡성 등 고을 田稅와 稅穀을 여기에 수납하여 조운으로 서울에 가져간다.)

23) 『高麗史』 卷第33 「食貨志」 漕運條 참조.

24) 『高麗史』 卷第33 食貨志2 漕運條, “靖宗朝 定十二倉漕船之數 石頭 通陽 永豐 鎮城 芙蓉 長興 海龍 海陵 安興 各倉六艘 並哨馬船 一船載一千石 德興二十艘 興元二十一艘 並平底船 一船載二百石”(밀줄 필자)

25) 『高麗史』 卷第33 食貨志2 漕運條 “國初南道水郡置十二倉 … 倉置判官 州君租稅 各以附近 輸諸倉 翌年二月漕運 近地限四月 遠地限五月 畢輸京倉”

26) 12조창의 창설시기에 관해서는 『고려사』에 단지 ‘國初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高麗史』 卷第33 「食貨志」 2 漕運條 “國初南道水郡置十二倉 忠州曰德興 原州曰興元…” 건국초기에 남방 각도의 水郡(수운이 가능한 하천 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고을)들에 12개의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충주에는 德興倉, 원주에는 興元倉…)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운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고려사』 卷 79의 靖宗代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北村秀人, 앞 글(1979), pp. 406, 432)

“원주는 영월의 서쪽에 있고 감사가 나스리는 곳이다. 서쪽으로 250리 떨어져 한양이 있다. 동쪽은 재와 산협에 연하였고, 서쪽은 砥平縣에 인접하는데, 산골짜기 사이에 고원 분지가 열려서 맑고 깨끗하며 그리 험준치 않다. 영동과 경기 사이에 끼어 동해의 물고기, 소금, 인삼, 棺槨, 궁전의 재목을 운수하여 도내의 도회가 되었다.”<sup>27)</sup>

라는 기록이라든지

“(원주는) 산협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하여 숨기 쉽고, 서울이 가까워서 무사할 때에는 나아갈 수 있는 까닭에 한양의 사대부가 많이 이곳에 살기를 즐겨한다.”<sup>28)</sup>

“(원주는) … 이에 강원 일도에서 서울에 통하고, 모이는 장소가 되어 사대부가 많이 대를 이어 살고, 또 많은 사람이 舟商으로써 부자가 된다.”<sup>29)</sup>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 수로를 통하여 개경의 새로운 문화가 이곳 원주 일대에 속속 유입되었을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이곳 원주는 고려 개국때부터 최소한 11세기 말까지 약 2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 왔고, 아울러 수로를 통한 인근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들은 이곳 원주가 나말여초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원주의 대표적 불교유적 및 미술들은 모두 강을 따라 늘어서 있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이곳 원주는 원주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세기는 원주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11세기에 만들어진 불교미술이 바로 지광국사현묘탑(圖 1)이고, 입석사의 마애불좌상(圖 19, 21)이다. 이 밖에 정확한 제작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과 동일양식으로 보여지는 여러 구의 불상과 보살입상들이 있다.

27) 李重煥撰, 『擇里志』 六, 江原道 “原州在寧越西 爲監司所治 西距漢陽二百五十里 東近嶺峽 西接砥平縣 山谷間 錯開原野 明秀而不甚險阻 介畿嶺間 輸東海魚、鹽、人蔘、棺槨、宮殿之材 爲一道會…”

28) 李重煥撰, 『擇里志』 六, 江原道 “(原州)…近峽 有事易以隱避 近京 無事可以進取 故漢陽士大夫 多樂居於此”

29) 李重煥撰, 『擇里志』 六, 江原道 “(原州)…茲爲江原一道通京輸會之所 多世居士大夫 亦多以舟商致富厚者”

### Ⅲ.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보살입상의 현상 및 특징

#### 1. 불좌상

원주지역에는 동일양식으로 보이는 십여 구의 불상과 보살입상들이 있다. 이들 중 불상의 경우는 옷주름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그룹은 한눈에도 서로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예들인데, 대표적인 조각들로는 봉산동 석불좌상(圖 4.5), 일산동 석불좌상 2구(圖 6.7.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 ㉞(圖 9.10),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철조약사불(圖 12), 그리고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비로자나석불좌상(圖 11)<sup>30)</sup>이 있다. 이들 불좌상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 ㉞와 철조약사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를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 일산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구 중 1구의 불두라고 추정되는 두부가 1981년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圖 32).<sup>31)</sup>

우선 봉산동 석불좌상(圖 4.5)은 얼굴이 깨어지고 신체의 부분부분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광배와 대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남아있다.<sup>32)</sup> 이 불좌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역시 옷주름이다. 굵고 투박한 옷주름이 양 어깨와 배, 그리고 무릎에 이르기까지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다.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시키는 고리장식이 있고, 그 밑으로 ㄱ형의 주름이 잡혀있다. 오른쪽 어깨의 가사 아래에는 빠져나온 옷자락이 U자형을 이루며 늘어져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오른쪽 다리 위에 보이는 이중의 옷자락이다. 오른쪽 무릎 위에 물결치듯 흐르는 옷자락이 있고, 다시 발목 부근에 또 한겹의 옷자락이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의 불상에서는 드문 경우이지만 이곳 원주지역 불상의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아울러 결가부좌한 양 발목 아랫부분에는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부채꼴 주름이 보인다. 이와 동일한 특징은 뒤에서 언급할 일산동 석불좌상(圖 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산동 석불좌상은 광배 역시 잘 남아있는데(圖 4),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중 이처럼 광

30) 원주시 일산동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리번호 04129) 현재 그 정확한 소재는 파악할 수 없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1994), p. 110 참조.)

31) 떨어진 불두는 1981년 일산동 석불좌상 부근에서 발견되어 춘천시의 강원도향토사료관으로 이전되었다가 1993년 12월 매장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유물번호 新收 5958)

32)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8호. 원주시 봉산2동 산46-6의 민가에 놓여져 있던 것을 최근 원주시립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대좌의 노출된 부분만을 포함한 전체높이가 1.75m에 이른다.



圖 4. 봉산동 석불좌상, 전체높이 1.75m,  
원주시립박물관



圖 5. 봉산동 석불좌상(圖 4)의 佛身부분

배까지 남겨져 있는 예는 드문 경우 중 하나이다. 두광과 신광을 2줄의 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자리에는 화려한 불꽃무늬를, 두광과 신광의 내부에는 당초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광배는 투박한 대좌의 조각에 비해 각선이 섬세하고 세련되었다.

이와 동일한 옷주름 표현을 보여주는 예로 일산동 석불좌상(圖 6~8)이 있다.<sup>33)</sup> 2구 모두 광배를 잃었고, 불두 역시 2구 모두 새로 조성한 것이다. 2구의 불좌상 중 1구(圖 6.7)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나머지 1구(圖 8)의 경우 마모가 심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보는 어렵다. 그러나 대좌의 형태, 크기 등으로 미루어 같은 시기 함께 조성되었음이 분명한 이 2구의 불좌상이 서로 동일한 형태였을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중 상태가 비교적 좋은 圖 6의 옷주름을 통해 살펴보면 圖 5의 봉산동 석불좌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산동 석불좌상의 배 위에는 리본모양의 띠매듭이 있다는 것인데, 이 띠매듭 역시 이곳 원주지역의 불좌상에서는 흔히 보인다.

圖 9는 圖 17과 함께 원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sup>34)</sup>

33) 원래 원주시 중앙동 廢寺址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남산 추월대로 옮겨 놓았고, 그 후 1962년 5월 강원 감영으로 옮겨졌다. 최근 원주시립박물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다시 박물관 뜰로 옮겨 지금에 이른다.(각각의 전체높이(대좌포함) 약 2.15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5호.) 현재 머리부분은 2구 모두 後補이다.



圖 6. 일산동 석불좌상①(圖 7)의 佛身부분



圖 7. 일산동 석불좌상①, 전체높이 약 2.15m, 원주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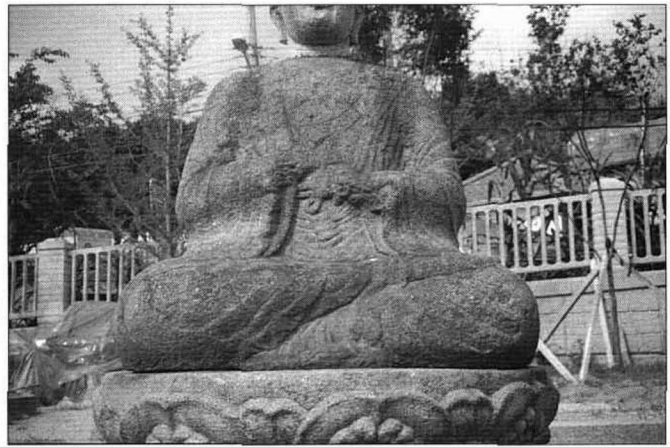


圖 8. 일산동 석불좌상②의 佛身부분

이 중 圖 9는 첫 번째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앞서 살펴 본 일산동 석불좌상과 차이

34) 원주군 本部面 本楮田洞출토와 傳令傳寺址로 되어 있으나 (『朝鮮古蹟圖譜』 7 도판 3146-65, 3166)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다.

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점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圖 6과 圖 10의 비교)이와 함께 지금은 소재를 알 수 없는 圖 11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약사철불좌상(圖 12)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약사철불좌상은 왼쪽 어깨 위의 고리장식이라든지(圖 13과 14 비교) 불상 뒷면의 옷주름에 이르기까지 봉산동 석불좌상과 같은 모습 이어서(圖 15와 16의 비교) 이들을 동일 형식을 지닌 동일 유형의 작품들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圖 9. 비로자나석불좌상(가),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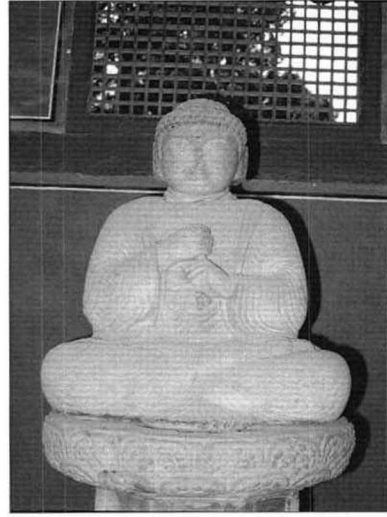


圖 10. 비로자나석불좌상(가)(그림 9의 佛身부분), 국립중앙박물관



圖 11. 비로자나석불좌상, 소재미상(『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p.110)



圖 12. 약사철불좌상, 무릎폭 77cm, 높이 114cm, 국립중앙박물관



圖 13. 약사철불좌상 그림 12의 뒷면



圖 14. 봉산동 석불좌상  
(圖 5)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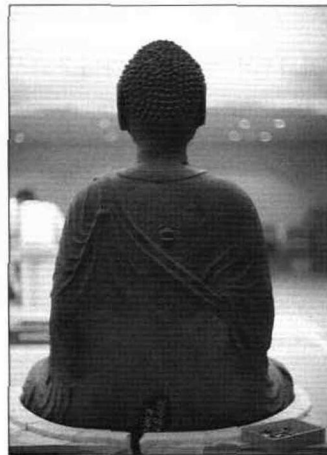


圖 15. 약사칠불좌상(圖 12)의  
왼쪽어깨부분



圖 16. 봉산동 석불좌상(圖 5)의 왼  
쪽어깨부분

두 번째 그룹은 앞서 언급한 불상군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나 옷주름이 비교적 정연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예들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sup>㉠</sup>(圖 17,18), 宣宗7년의 입석사 마애불(圖 19,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아미타불좌상(圖 20), 그리고 1085년 지광국사 현묘탑 옥개석의 불좌상(圖 22)이 있다. 이들은 앞서의 불상군보다 얼굴이 더욱 둥글어 졌고, 뺨에는 살이 올라 어린아이같은 얼굴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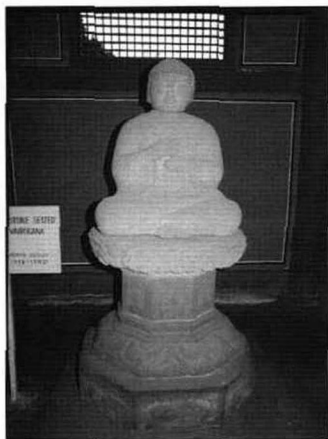


圖 17. 비로자나석불좌상<sup>㉠</sup>,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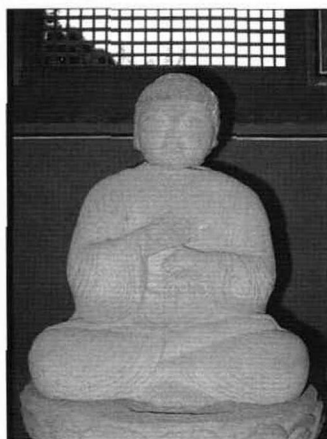


圖 18. 비로자나석불좌상<sup>㉠</sup>  
(圖 17)의 佛身부분



圖 19. 입석사 마애불좌상,  
상 높이 62cm

두 번째 그룹으로 규정지워진 일군의 불상들을 대표하는 예로는 圖 18과 함께 원우5년(1090)의 명문을 지닌 입석사의 마애불좌상(圖 19,21)이 있다.<sup>35)</sup> 이 2구의 조각을 함께 놓고 보면 낮은 육체에 나발이 굽고 이마가 좁다. 동그란 얼굴에 뺨에는 살이 올라 있고, 눈 두덩이가 두둑하며, 자그마한 코 아래 윗 입술 부분이 약간 부풀어져 있다. 목은 짧아 어깨와 붙어 있으며 어깨, 가슴, 무릎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둥글다. 물론 입석사 마애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圖 17,18)처럼 물결진 옷주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옷주름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은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철조아미타불좌상(圖 20)<sup>36)</sup> 역시 같은 계열의 불상인데 얼굴, 가슴, 어깨 등 전체적으로 둥글며 자세가 안정감있다. 앞서의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코가 작고, 인중부위가 두툼하다. 양미간에는 백호를 끼웠던 흔적이 있으며, 배 위에는 단정한 나비모양의 매듭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원우5년(1090)명 입석사마애불좌상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서로 같은 유형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圖 20. 아미타철불좌상, 국립중앙 박물관



圖 21. 입석사 마애불좌상 (圖 19)의 탁본



圖 2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의 옥개석 불좌상, 경북궁

이와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1085년의 지광국사 현묘탑 옥개석의 불좌상(圖 22)이 있다.<sup>37)</sup> 탑의 옥개석 사면에는 비록 작지만 분명한 형태를 보이는 1구씩의 불좌상이 있는데,

35) 원주 입석사 마애불좌상의 조성배경, 형식 및 양식적 특징 등에 관해서는 임영애, 「元祐5年(1090)銘 원주 입석사 마애불좌상 小考(1999)」, pp. 195~211를 참조하기 바란다.

36) 원주시 우산동의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불상의 높이는 110cm.

37) 지광국사 현묘탑에 관해서는 이영희,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에 관한 연구」, 『考古美術』 173, (1987), pp. 45~79 참조.

이 중 남면과 서면 불좌상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圖 22) 모두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안정감있는 신체비례라든지, 양감있는 둥근 얼굴모습 등에서 역시 입석사 마애불좌상과 비견된다.(圖 21과 22 비교)

광배는 봉산동 석불좌상을 제외하고는 남아있지 않지만, 대좌는 비교적 잘 남아있어 비교고찰이 가능하다. 남아있는 대좌들은 모두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불상 무릎 넓이보다 약간 넓은 상대, 각종 부조로 장식된 8각형의 중대, 그리고 상대보다 폭이 좁은 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圖 23. 비로자나석불좌상(가)  
(그림 10)의 옆면



圖 24. 비로자나석불좌상(나)  
(圖 18)의 옆면



圖 25. 봉산동 보살입상,  
높이 1.78m



圖 26. 봉산동 학봉정출토 보살입상, 춘천시 향토사료관 소장



圖 27. 신선암 보살입상, 높이 1.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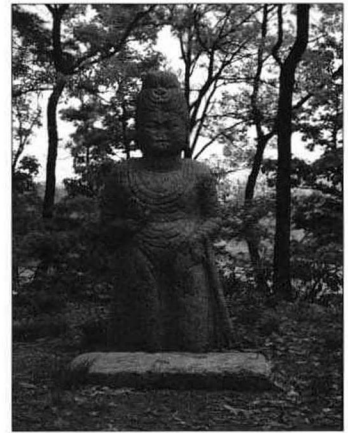


圖 28.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높이 2.43m(지하매물부분 7.5cm),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 2. 보살입상

보살상 역시 서로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흥업면 매지리 석조보살입상(圖 28)이나, 신선암 석조보살입상(圖 27), 봉산동의 석조보살입상(圖 25), 또 같은 봉산동에서 출토되어 현재 춘천시내 향토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살입상(圖 26)<sup>38)</sup>, 그리고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지만 법천리에 있었다는 석조보살입상<sup>39)</sup> 등이 그것이다.<sup>40)</sup>

봉산동 석조보살입상(圖 25)은 등신대의 비교적 당당한 보살입상인데 현재 광배와 대좌는 남아있지 않다.<sup>41)</sup> 머리 위에는 매미날개 모양의 독특한 보관을 쓰고 있고 네모진 얼굴에는 양감이 있다. 눈,코,입은 비교적 작고 오밀조밀하며 입가에는 미소가 있어 친근감을 준다. 직립한 하체에는 균의가 양 다리 위로 갈라져 W자형으로 흐르고 있다. 양 손은 신체에 비해 크기가 작는데,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손바닥을 안으로 하고 있고 왼손은 배부근에 역시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대고 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매지리 보살입상(圖 28)도 네모난 얼굴에 자그마한 코와 입, 그리고 납작한 얼굴모습 등이 특징이다.<sup>42)</sup> 천의를 불상의 가사와 같은 형태로 입었는데, 옷주름이 가슴부분에서 U자형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려오다가 Y자형으로 갈라져 있다. 발목 아랫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대좌를 새로 만들기 위해 노출시켜 보니, 머리부터 발목까지만 한 돌로 조각하고 발부분은 따로 대좌와 함께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圖 30,31) 圖 31을 보면 발목 아래 부분에 짧은 사각기둥모양의 축이 달려 대좌에 끼우게 되어 있어서 말한 독특한 기법으로 조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매지리 보살입상의 대좌는 남

38) 이 보살입상은 원주시 봉산동 학봉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거의 같은 보살입상이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에 보이는데, 지면관계상 사진은 실지 못하였다.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이 보살입상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천왕사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1994), p. 112 참조.

39) 사진은 지면관계상 실지 못하였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1994), p. 112 참조) 동네주민들에 의하면 1990년까지 보살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

40) 이 곳 원주 일대에 산재해 있는 불교조각 및 기타 유물들에 관한 자료들은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41)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이 보살입상은 天王寺址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구전이 있으나 寺址의 위치에 관해서 분명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東國輿地勝覽』 원주목 佛宇條에 '天王寺는 州의 동쪽 2리쯤에 있다. 지금은 廢止되고 射廳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어 대략 조선 성종대에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보살입상은 미륵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암자의 뜰에 세워져 있다. 전체높이 1.78m, 머리높이 0.43m, 폭 50cm 높이 1.78미터, 머리높이 0.43미터, 폭0.5미터.

42) 이 보살입상은 원주시 연세대학교 매지리캠퍼스 저수지 안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圖 29) 보살상의 조사를 위해서는 저수지를 횡단할 수 있는 보트가 필요하다. 1998년 8월 강원도 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된 이후 최근 두 발과 대좌를 새롭게 만들었다. 전체높이 243cm.



圖 29. 그림 28이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거북섬

겨져 있지 않지만, 인근 강원도 화천 성불사지 석불입상의 경우, 두 발이 대좌 위에 조각된 예가 있다. 이처럼 불상의 두 발을 신체와 함께 조각하지 않고 따로 대좌 위에 조각하여 하반신의 발목과 연결되게 제작하는 방법은 고려시대 돌조각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인데, 앞서 언급한 봉산동 보살입상이나 신선암 보살입상도 현재 남겨져 있는 상태로 미루어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매지리 보살입상은 높이 솟은 독특한 보개가 눈길을 끄는데, 같은 형태는 신선암 보살입상(圖 27)이나 춘천시 향토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주보살입상(圖 26)에서도 보인다. 특히 신선암 보살입상<sup>43)</sup>은 옷주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지리 보살입상과 동일한 모습이어서 이들을 같은 계열로 분류하여도 무리가 없다. 춘천시 향토사료관의 보살입상(圖 26)은 옷주름의 형태에서는 앞서의 보살입상과 차이를 보이지만, 역시 높이 솟은 보개, 네모난 얼굴에 눈,코,입이 중앙으로 모여있는 얼굴모습 등은 앞서의 보살상과 공통된다.

43) 신선암은 지금의 봉산2동이며, 봉산동 석불좌상(圖 4.5)이 있던 곳과 가깝다. 보살상 높이 1.7m

#### IV. 양식적 특징과 제작년대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이 곳 원주는 원주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세기는 원주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11세기에 만들어진 불교 미술이 바로 앞서 언급한 지광국사 현묘탑이고, 입석사의 마애불좌상이다.

앞서 이곳 원주지역의 불상을 크게 옷주름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圖 30.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첫 번째 그룹은 특이한 옷주름 형태와 옷주름선의 장식성이 두드러진 예들이다. 이들 불상은 물결치듯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옷주름선,<sup>44)</sup> 오른쪽 어깨의 가사 밑에서 빠져나와 배위를 살짝 덮고 있는 U자형 옷자락, 오른쪽 다리 위에 보이는 이중의 옷자락, 그리고 결가부좌한 양 발목 사이의 경사진 부채꼴 주름, 왼쪽 무릎 위의 긴 타원형 옷주름선 등은 한 사람의 솜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모든 면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준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의 불상들과 동일한 비례와 刻線, 동일한 대좌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옷주름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차이는 단지 오른쪽 다리 위에 이중의 옷주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 옷주름이 잘 정돈되어 있어 복잡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얼굴에 양감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점 등이지만 대차는

44) 이같은 장식적 주름에 관해 “물결같은 주름이 울동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흐름이 불신과 법의주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장식적인 효과에 더욱 관심있어 보인다. ... 이 지역이 고려시대에 어느 호족이나 문벌귀족의 후원을 입어 불교가 융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이미 있었다. 김리나 「고려시대 석조불상 연구」, 『고고미술』 166·167(1985), p.60.

없다. 두 번째 그룹은 모두 불두가 잘 남겨져 있어 비교고찰이 가능한데, 즉 양감있는 둥근 얼굴에 코가 작고, 이목구비가 가운데로 몰려있으며, 인중이 두툼한 모습이다.

이처럼 단순히 옷주름의 형태에 따라 굳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나뉘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옷주름의 차이에 따른 양식적 특징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그룹에 두었던 圖 10과 두 번째 그룹의 圖 18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두 예는 옷주름의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물결치듯 포물선을 그리며 흘러내리는 도식적인 옷주름선들, 살짝 뒤로 젖혀진 통견의 대의 깃, 배부분의 나비모양 띠매듭,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신체, 그리고 둥근 얼굴에 굵직굵직한 나발과 낮은 육계 등의 모습에서 한눈에 동일인의 숨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옆모습의 비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다.(圖 23과 24 비교) 왼쪽 어깨 뒤로 넘겨진 옷자락과 왼쪽 허벅지 뒤로 흐르는 옷자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서로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은 불두에서도 그대로 입증된다. 일산동 불좌상은 현재 2구 모두 머리를 잃었고, 지금의 불두는 후보한 것임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일산동 석조불좌상 2구 중 1구의 불두라고 추정되는 두부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마모가 심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불신의 크기와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일산동 석불좌상(圖 6~8)의 잃어버린 두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5)</sup> 첫 번째 그룹의 일산동 석불좌상 불두(圖 32)를 앞서 살펴본 두 번째 그룹의 입석사 마애불좌상의 불두(圖 33)와 비교하여 보면, 얼굴형, 낮은 육계에 굵직굵직한 나발, 좁은 이마, 그리고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곡선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습이다.

비록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원주 불상들은 옷주름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신체비례, 양감, 얼굴모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서로 같은 시기, 같은 경향아래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기는 절대편년을 가지고 있는 1090년 입석사 마애불좌상과 1085년 지광국사 현묘탑의 옥개석 불좌상을 통해 11세기 중반~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석조보살입상들 역시 불좌상과 마찬가지로 약간씩의 차이를 지니고는 있지만 이곳 원주에서 하나의 지방유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

45) 이 불두가 바로 일산동 석불좌상(圖 6~8)이 있던 곳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신체의 높이(佛頭 제외)가 72~74cm(상대가 비교적 좋은 불좌상이 72cm, 마모가 심한 불좌상이 74cm)이고, 불두의 높이는 37.7cm이다. 불두 對 불신 = 101:37.3 = 1:2.96으로 크기의 비례가 적당하고, 아울러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도 2구의 석불좌상 중 1구의 불두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圖 31. 그림 30의 하단부분



圖 32. 佛頭(圖 6 혹은 8의 불두), 국립중앙박물관

준다. 즉 사각형의 얼굴에는 양감이 두드러지며, 코와 입이 작고 약간 가운데로 물려 있다. 아울러 짧은 이마에 높이 솟은 보계가 그 특징이다. 이들의 얼굴을 1090년 입석사 마애불좌상과 함께 놓고 보면(圖 33과 34) 둥근얼굴, 살이 오른 뺨이라든지, 사다리꼴 모양의 두툼한 인종의 모습, 눈매, 미소를 머금은 도톰한 입술 등에서 보살입상 역시 입석사 마애불좌상과 비슷한 시기로 놓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진다.



圖 34. 봉산동 석조보살입상(圖 25)의 얼굴부분



圖 33. 입석사 마애불좌상(圖 19)의 얼굴부분, 얼굴높이 28cm

끝으로 상대편년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법천사지의 석조불좌상이 있다(圖 35). 현재 법천사지에 남겨져 있는 이 좌상은 석불좌상 위에 보살상의 두부를 얹어놓은 상태인데, 법천사지의 사세로 미루어 11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이다. 보살상의 두부는 현재 춘천에 있는 보살상(圖 26)과 비견되며, 불좌상의 하반신에 보이는 옷주름표현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원주의 석불좌상과 대차가 없다.



圖 35. 법천사지 보살두 및 불좌상

지금까지 절대편년을 가진 입석사마애불좌상과 현묘탑의 불좌상, 그리고 상대편년을 지닌 법천사지의 불좌상을 중심으로하여 원주지역의 불교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살펴 본 원주의 불교조각들은 앞서의 편년자료들과 비슷한 시기, 즉 대략 11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11세기라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20여구 이상의 불교조각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이곳 원주지역에 하나의 지방유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울러 고려시대에 지방별로 형성된 여러 조각유과 중 또 하나의 유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V. 맺음말 -조각사적 의의-

고려시대 전기 조각사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유과를 중심으로 고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불교조각의 양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회의적일 수 있다. 과연 이곳 원주의 불교조각들 역시 이같은 특징을 단지 지역 양식 혹은 지방양식으로 파악하고 자리매김하는데 그쳐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시 중앙양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같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원주의 조각들은 원주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중앙양식의 강한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추정가능하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개경의 조각 중 11세기의 기년명을 가진 예는 1020년 현화사탑 탑신부의 조각을 제외하고는 없다.<sup>46)</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 원주의 조각들이 얼마만큼 중앙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

46) 현화사지의 칠층석탑에 관해서는 강병희, 「고려 현화사지 칠층석탑에 대하여」,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며, 얼마만큼 지방색을 지니고 있는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 원주의 불교조각들은 이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세력기반을 가진 지원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들 지원세력은 모두 중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집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맞물리는 것이 수로를 통한 경제기반의 확립과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었을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1세기라는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불·보살상의 특징들은 당시 고려의 왕조와 원주와의 지리적, 정치·경제적 그리고 불교적인 면에서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당시 소위 '중앙양식'과는 대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1085년,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자연의 아들인 소현국사가 세운 현묘탑의 불좌상과 입석사마애불좌상의 비교를 통해 미약하지만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1세기 말까지 이곳 원주지역이 고려시대 전기 불교미술 중심지로 부각되다가 12세기 이후 쇠락이 시작된다. 이는 비단 원주지역 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주 원씨가 중기 이후 침체되고, 또 12세기부터 조창의 존재 기반이었던 군현제가 변화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농토를 잃고 유랑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다. 게다가 계속되는 왜구의 외압으로 조운 자체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육운으로 전환하게 되는 사태를 빚게 만들었다. 이같은 조운제의 변화는 원주의 불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세력 및 그 배후의 경제력 감소를 가져왔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원주는 흔들렸고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끝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를테면 100년 가량 제작시기가 앞서는 3구의 철불좌상과 이 글의 연구대상인 11세기 불교조각과는 양식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는지, 또 11세기 원주의 불교조각들은 주변지역, 이를테면 남한강 수로와 연결되는 중원지역의 충주, 고달사 등 인근사찰과의 관련 등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당시 불교의 종파와 도상과의 연결은 또한 어떠한지 등의 문제이다.

이 중 두 번째 문제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원주의 조각들이 경상북도 예천 청룡사석조불좌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연관이 짐작된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11세기 전반기 거둔사에 승탑과 석비를 남기고 있는 원공국사 지종이 경북 문경의 봉암산문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거둔사와 봉암산문과의 관련성은 선종의 다른 선문보다도 상당히 깊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시 종파와 도상과의 관련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써는 단언하기 어렵다. 11세기

---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pp. 183~204 참조.

이곳 원주에서 유행하였던 법상종의 경우 교학이 종합적인 면을 띄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신앙도 같은 경향이었다고 추측된다. 즉 일반적으로 법상종은 미륵신앙이 주이지만 아미타도 같이 신앙되었고, 또 해린의 제자인 소현의 경우 금산사에 로사나상을 조성하고 있어 신앙적인 면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조각이 어떤 종파의 배경 아래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고려조각사 연구에 있어 가장 미진한 부분은 고려시대 전기라는 시기였다. 고려시대 전기 특히 석조조각의 수는 대단히 많지만, 몇몇 철불상들과 명주지역의 석조보살상, 그리고 충청도지방의 거불들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시기 절대편년을 가진 조각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주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1090년 입석사마애불좌상을 통해 이 지역 불교조각, 나아가서는 고려전기 불교조각을 연구하는데 미약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ABSTRACT]

## Buddhist Sculpture of Wŏnju in the Early Koryŏ period

Yim Young-ae

A number of Buddhist sculptures are extant in the Wŏnju 原州 area unlike other parts of the Kangwŏn province. Most of them are dated to the first half of the Koryŏ period. Thirteen pieces are present in situ, while five iron images and two stone images are stored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The fact that all the twenty pieces are created in a small area within a short span of time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but no previous study has focused on these objects.

They have not drawn scholarly attention most probably because they seemed to include no datable piece. Fortunately, we now have one datable piece, a rock-carved Buddha of Ipsŏk-sa 立石寺, which has an inscription of the 5th year of Yuanyou (1090). It is anticipated that it would provide an important clue for dating other similar pieces.

This article is the first attempt to deal with the Buddhist sculpture of Wŏnju in a single group in the light of the dated Buddha of Ipsŏk-sa. In this attempt, I explore the reason for the creation of a large number of Buddhist sculptures in this area and the more specific date of their creation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Koryŏ period.

Several points are presented in conclusion. First, all the sculptures from this area share the same stylistic characteristics and datable roughly to the middle to the late 11th century.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Wŏnju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this particular style. Wŏnju wa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Kaegyŏng 開京, the capital of Koryŏ, connected through the South Han river. Especially Wŏnju enjoyed prosperity during the 11th century, when the Hŭngwŏn granary 興原倉 was installed in this city. Thus, the Buddhist sculpture of Wŏnju wa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tyle of the capital area. Unfortunately no sculpture made in Kaegyŏng during the 11th century; so it is not possible to make stylistic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regions. It is certain, however, that the Buddhist sculptures of Wŏnju had their patrons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central capital area and

great authority over Wŏnju. Cultural communication with other area through river transportation must have promoted the refinement of the sculpture of this area .

I suggest that the sculptural style of Wŏnju in the 11th century would have been quite similar to that of Kaegyŏng, because they had a close relationship in many respects. This conclusion would be supported by the comparison between a rock-carved Buddha of Ipsŏk-sa and the sculptural decoration on the relic stupa of the national patriarch Chigwang 智光國師.